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 남동구 관급 부실공사 일침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

### 5분 발언, 부적합 건축자재 이용해 결로 현상 등 피해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남동구 관급 부실공사 관리 감독에 있어 뼈 때리는 지적은 박종호 호 집행부의 무능이 부상한 가운데 도마 위로 올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구민 세금이 대거 투입된 공공건축물들을 흔하게 접하고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건축 사업의 결과는 부실공사로 나타났다. 부실공사 사례가 증가하며, 공공재정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남동구의 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에 석분이 아닌 토분을 사용하는 등 부적합한 건축자재를 이용한 부실시공 논란을 강조했다. 부실공사의 문제는 우리 남동구도 피해갈 수는 없

다는 것, 그러면서 2023년 5월, 총 사업비 24억을 들여 개관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체험관에서는 집중호우로 토사물이 내부로 흘러들었다.

보도블럭이 뒤뜰렸음에도 보수 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부실시공 피해를 이어갔는데 3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창어울마당도 시범운영 전, 현장을 방문해보니 보완해야 할 문제와 관련해 해결할 것이 많았다고 했다.

공식 개관마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수영장은 물론 2층 동아리실 천장에 결로가 생겼고, 바른지 얼마 되지 않은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다고 했다. 높은 계단형 도서관 설계는 추락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개관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니 어찌 공식 개관이 쉽겠냐는 일침은 관급공사 부실이란단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남동구의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 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비단 이런 사례만 있겠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실 관급공사 발생의 원인

은 이용자와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 설계용역 및 시공 결과에 대한 검토 부족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구민의 생활권 보장에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구에서 진행하는 수습, 수백억 짜리 공사는 더욱 신중한 행정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주체로서,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성실과 책임을 다해 내 집처럼 꼼꼼하게 살피야 한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구 차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이 언제나 구민 안전, 현장 안전, 그리고 구민 편의성과 만족감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공사 시공단계에서 건축 계획과 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감독관을 구성하거나 설계단계에서 이용자, 건축전문가, 설계자, 사업주관부서로 구성된 공공건축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시공과 현장

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역대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 건축 사업 및 공사들의 결과물이 반복되는 실망감이 아닌 구민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지적은 남동구 관리 감독의 엉망이란 물음표를 남겼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언제나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는 남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박종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가 있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지역민 A 씨(서창동 63, 여)는 이연주 의원에 5분 발언은 당연한 지적으로 관급공사의 부실 폐단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심각한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창동 또한 자동차가 달리면 방음벽이 없어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 정도라며 동영상을 보내왔다.

관급공사의 부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방치는 참담하다. 조속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남동구가 나서 개선점을 찾아주어야 하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논현동 체험관 부실공사로 인해 진흙탕물이 들어차 난리 난 모습.

있다는 지역민 비판도 나왔다.

한편,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이연주 의원과 관련해 “관급공사 부실 문제를 각 부서를 통해 취합하고 있다.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타 부서도 오는 17일까지 취합된 사안을 의회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 인천경제청, ‘명문학교, 개발업자 공모’ 사실과 달라

### 외국 교육기관 설립, 명문학교 법인 주도 방침 확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에는 토지임대비용 및 교사, 부속건물 등의 건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학교 유치·설립에 관심을 보인 학교사업 제안자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사업 제안자 면담 및 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명문학교 법인이 주도하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는 것.

언론보도의 “기사에 있는 ‘개발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종총연은 이와 관련된 인천경제청의 킹스 방문 요청에 킹스 본교는 이미 3차례나 거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이번 영국 출장 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킹스 본교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그러함에도 영국 방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인천경제청 저의는

무엇인지, 거절 의사를 알고도 출장을 강행했다면 이는 철저히 면피용 위유성 출장이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수장이 이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무능과 무관심, 무성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도 이었다.

인천경제청은 2022년 이후 ‘킹스 칼리지스쿨 워블던’을 포함한 영국·미국·캐나다 학교사업 제안자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설립심사 및 설립 인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과 설립 절차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학교 설립에 LOI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 등 총 7개교에 방문 및 미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중 6개 학교와 연락이 닿아 만남이 있었지만 ‘킹스칼리지스쿨 워블던’은 인천경제청에서 MOU를 체결하는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만 미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명문 학교가 “영종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와의 MOU 체결은 타의 학교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인천경제청의 ‘킹스칼리지스쿨 워블던’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공모 방침을 세워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혀 왔는데 공모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학교들을 지목해 다녀온 것은 모순 행정이자,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공모에 앞서 참여 제안 기관의 본교와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 홍보하는 업무는 인천경제청 고유의 투자유치 업무에 해당한다. 경제청은 다수의 학교사업 제안자들과 미팅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왔다. 금회 영국 출장에서는 LOI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영종골든테라스(현 미단시티)에 인천 분교 설립에 관심을 표명한 영국 명문학교 또한 포함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외에 영종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캐나다 소재 본교들을 대상으로 분교 설립 의사, 진출 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영종국제도시에 명문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공모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미순 기자

## 중구, ‘낭만과 감성’ 개항누리길

### 향수 부른 포차 거리 개장

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원도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 ‘2024년도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를 성황리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개장일에는 지역의 목공예품과 마카롱·전통 음료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플라마켓이 열렸고, 개항누리길 광장 무대에서는 ‘아침트리오’ 등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올해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는 우현로35번길 일원 10여 개 상점의 참여로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거리 일대에 레트로풍 조명이 어우러져 낭만 가득한 밤을 선사할 계획이다.

5월 10일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구는 포차거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구 행사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내 상인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라마켓도 상시 모집해 진행하



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포차거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개장 당일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포차거리를 직접 즐기며 주민·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정현 구청장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2024년 개항누리길 포차거리에 많은 사람이 봄비는 모습을 보니 젊음의 활력이 느껴진다”라며 “개장을 위해 협조한 상인들과 지역주민, 유관기관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